

KOTRA 「코로나19 비상대책반」 일일 동향 보고

- 8.26(수), 코로나19 비상대책반 -

1. 서남아지역본부

□ 현지 정부 대응 정책 동향

국가 (무역관)	내용				
인도 (뉴델리)	□ 현황 (총 3,234,474명 확진, 67,151명 신규확진, 59,449명 사망)				
	연번	지역	누적확진자	신규확진자	사망
	1	안다만&니코바르제도	2945	41	37
	2	안드라프라데시	371639	9927	3460
	3	아루나찰프라데시	3412	100	5
	4	아삼	94592	1973	260
	5	비하르	124536	1338	519
	6	찬디가르	3209	174	40
	7	차티스가르	23341	1287	221
	8	다드라나가르하벨리	2203	22	2
	9	델리	164071	1544	4330
	10	고아	14530	392	157
	11	구자라트	88805	1114	2928
	12	하리아나	56608	1148	623
	13	히마찰프라데시	5154	53	30
	14	잠무&카슈미르	33776	701	638
	15	자르칸드	31973	968	347
	16	카르나타카	291826	8161	4958
	17	케랄라	61879	2375	244
	18	라다크	2420	90	24
	19	마드야프라데시	55800	1379	1265
	20	마하라슈트라	703823	10425	22794
	21	마니푸르	5444	82	24
	22	미조람	967	14	0
	23	메갈라야	2018	42	8
	24	나갈랜드	3752	38	9
	25	오디샤	84231	2752	428
	26	푸두체리	11426	567	172
	27	편잡	44577	1293	1178
	28	라자스탄	73325	1370	980
	29	시킴	1475	29	3
	30	타밀나두	391303	5951	6721
	31	텔랑가나	111688	3018	780
	32	트리푸라	9523	328	83
	33	우타라칸드	16014	485	213
	34	우타르프라데시	197388	5006	3059
	35	웨스트벵갈	144801	2964	2909
-	총계	3234474	67151	59449	
*인도보건복지부 통계 8월 26일 오전 8시 기준 *음영처리된 지역은 상위 1-10위에 포함되며, 다수 무역관 인근 및 주재지역					

국가 (무역관)	내용
	<p>○ 인도정부, 코로나19 백신 제조 협력을 위해 러시아와 접촉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일(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가 최근 자국 최초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Sputnik)V' 제조를 위해 인도 제약사와 합작벤처를 설립하는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백신 수요 충족 목표 -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 생명공학부 및 의학연구위원회(ICMR)는 해당 협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p>*Business Standard https://bit.ly/2CXQpas 08.26</p> <p>○ 인도정부, 최초의 자국 생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일(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의학연구위원회(ICMR)는 델리 소재 제약사인 '오스카 메디케어(Oscar Medica)'가 개발한 신속 진단키트를 승인하였으며, 이는 인도 생명공학부가 지원하는 유일한 자국 생산의 코로나19 진단키트 - 기존 포도당 측정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동 진단키트 결과 도출까지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며, 동사는 내달까지 20만 건의 진단키트 출시를 목표하고 있음 <p>*Times of India https://bit.ly/2YAbDmC 08.26</p>
방글라데시 (다카)	<p>○ 방글라데시, 미국 투자자와 현지 코로나19 백신 제조공장 설립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일(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정부는 최근 무역투자기본협정(TICFA) 포럼에서 미국 투자자들에게 자국 제약 분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더불어 해당 협력의 일환으로 현지에 코로나19 백신 제조공정 설립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국민에게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백신 공급 도모 <p>*The Daily Star https://bit.ly/2EuZDeN 08.26</p>

□ 주재국 현지기업 동향

국가 (무역관)	내용
-------------	----

국가 (무역관)	내용
인도 (뉴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플, 내달부터 스마트폰 시장 최초로 온라인 스토어 개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일(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애플은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온라인 판매 스토어 운영을 오는 축제(디왈리)시즌 이전 착수하여 적극적 시장 공략 목표 - 더불어 애플은 향후 뭄바이, 벵갈루루 등에 자사 제조업체의 오프라인 매장을 개점하는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對남아시아 투자에 주력할 예정 <p style="text-align: right;">*Hindustantimes https://bit.ly/2Qr9K4 08.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소프트, 자사 음성합성(Neural TTS) 서비스에 힌디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일(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가 제공하는 약 45개 언어에 힌디어와 현지 버전의 영어를 추가하여 인도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 도모 - 해당 서비스를 통해 B2B 기업을 포함한 통신·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서비스 개발 등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p style="text-align: right;">*Business Standard https://bit.ly/2YCKxjc 08.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존 인도법인, 하이데라바드에 자사 최대 규모 사무실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일(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마존이 인도 남부 하이데라바드에 축구장 65배 규모인 180만 평방피트에 해당하는 대형 오피스를 설립하여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 공략에 주력 목표 - 반면 최근 인도의 다국적 기술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하면서 인도 정부는 외국인투자 규제 방안을 시행한 바 있으며, 아마존 또한 지난 1월 규제 당국으로부터 독점 금지 문제가 제기되었음 <p style="text-align: right;">*The Economic Times https://bit.ly/3jeOu0D 08.26</p>

□ 현지 진출 국내기업 동향

국가 (무역관)	내용
-------------	----

국가 (무역관)	내용
인도 (뉴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 내달 둘째 주 '갤럭시 M51' 현지 출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일(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초 7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생산문제로 인해 연기되었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M51'이 9월 둘째 주 출시될 것으로 알려짐 - 출시 관련하여 공식 발표된 바는 없으나 제품 디자인은 앞서 출시되었던 '갤럭시 M31'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격은 약 40만 원(2만5천 루피)에서 48만 원(3만 루피) 사이로 예상 <p style="text-align: right;">*Hindustantimes https://bit.ly/3liGT35 08.25</p>
방글라데시 (다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코인터내셔널, 방글라데시 심해 석유개발 프로젝트 계약 무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일(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앞서 방글라데시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방글라(Petrobangla)'와 체결했던 심해 석유개발 탐사계약을 무효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방글라데시 연안 지역의 석유·가스 탐사 활동은 일부 얕은 수역으로만 제한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계약된 탐사작업 수행 대신 생산공유계약(PSC) 관련 '상업조건' 개정을 요청하였으나, 방글라데시 기업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짐 <p style="text-align: right;">*Financial Express https://bit.ly/3j7ydL4 08.25</p>

□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

국가 (무역관)	내용
인도 (뉴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금년 하반기 실질GDP 증가로 경쟁성장률 예상치 유지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일(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무디스는 인도의 '20년 하반기 실질GDP 증가로 당초 금년 경제성장률로 예상했던 3.1%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인도는 중국과 더불어 하반기 실질GDP 성장이 예상되는 유일한 G-20 국가이며, 향후 '21년까지 꾸준한 성장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p style="text-align: right;">*Business Standard https://bit.ly/3hxWFor 08.25</p>

국가 (무역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정부, 내달 30일까지 현지 전자상거래 기업 '원산지 표기' 요청 - 금일(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산업통상진흥부(DPIIT)는 전자상거래 기업에게 자사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는 '원산지 표기' 정책의 마감일을 9월 30일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방안을 통해 자국의존도 향상 및 對중국 무역수지적자 5백억 달러 감축 등 목표 - 당초 정부는 마감일을 지난 1일(토)로 설정하였으나, 플립카트 등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의 반발로 연장한 바 있음 <p style="text-align: right;">*Livemint https://bit.ly/2EiB1X6 08.26</p>
인도 (첸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의 천연 가스 수요 반등, 코로나 19 이전 수준에 근접 - 인도는 지난해 7월 5,433 MMSCM (백만 미터 표준 입방 미터) 에 비해 올해 7 월 5,333 MMSCM 의 천연 가스를 소비했다고 공식 데이터가 밝혔음. * 7 월 LNG 수입은 전년 대비 6 % 증가한 2,963 MMSCM을 기록 - 이는 4,925 MMSCM의 소비로 전년 대비 9 % 감소했던 6 월에 비해 급격한 회복을 보임. 이는 비료 공장, 정유 공장 및 발전소의 높은 수요 가 주 요인임 - 인도에는 총 연간 42.5백만 톤의 용량을 가진 6 개의 LNG 수입 터미널이 있으며, 올해 4 ~ 6 월 구자라트의 Hazira에 있는 Shell Energy의 터미널은 87.8 %로 가장 높은 가동률을 기록했으며 Ennore에 있는 Indian Oil의 새 터미널은 최저 8 %의 가동률을 기록 <p style="text-align: right;">*The Economic Times http://bit.ly/3gvGEOm</p>